# 담양군 '잘사는 부자농촌 정책' 결실

##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농민 도움
## 축산농가 악취 해결 민원 감소
## 타 작물 재배·청년농 육성 박차

이병노 담양군수가 직접 이앙기를 몰며 모심기 작업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잘사는 부자 농촌' 정책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담양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담양의 제1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 '잘사는 부자 농촌'을 핵심 정책으로 정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대표적으로, 군은 농림축산부산물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1200원이던 유기질비료 지원단가를 상향해 2800원으로 정액지원하며, 지원량도 70만 포에서 105만 포로 크게 늘려 농업인들이 각종 물가 상승과 고유가 시대에 경영비 부담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와 악취 해결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담양군의 한·육우 가축분뇨 위탁처리량은 1만9000t으로 위탁처리 비율이 14%에 불과한 실정에서 사업 확대로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도 잦아들고 자연순환과 친환경농업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가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와 함께 타 작물 재배면적을 230ha까지 대폭 확대하고 분질미 시범단지 조성과 유채, 해바라기 등 신규 경관작물단지를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키로 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정부시책인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과 발맞춰 올해 청년 후계농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45명을 최종 선발하고, 청년농부 육성 사업으로 농가 26곳(27억원)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또 독립경영 4~5년 차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도 현장에 뿌리내렸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는 군비를 들여 지원액과 연령을 확대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전체 인구의 50%가 농업에 관련돼 있어 농민이 잘 살아야 담양이 잘 살 수 있다"며 "민선 8기 임기 내 다양한 농업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의 미래를 이끄는 혁신을 통해 잘 사는 부자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폼生폼士 강진향교…두부만들기 체험

## 강진문화원·장애인종합복지관

강진문화원이 최근 지역문화재활용사업 '폼生폼士 강진향교' 사업을 통해 두부 만들기 체험과 시식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와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두부 만들기는 농업회사법인 (주)두애 대표, 김만금 강사의 지도하에 두부 만들기 전 과정을 진행하며 두부를 만들었다. 〈사진〉

이번 체험은 강진문화원과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협약을 통해 이용자들의 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하고 자립과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기 위해 마련했다.

강진문화원과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7월까지 10회에 걸쳐 '폼生폼士 강진향교'를 진행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7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열린 '100세 돌봄 관리사' 위촉식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찾아가는 치매관리…나주시 관리사 38명 위촉

## 100세 안심 경로당 180곳 지정

나주시가 초고령 사회의 난제인 치매 예방·극복을 위해 '나주형 치매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치매 환자들이 물리적·심리적으로 고립되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거주 마을에서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는 것이다.

나주시는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치매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100세 돌봄 관리사' 38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돌봄 관리사들은 노인 돌봄, 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분야 전문 인력들이다.

이들은 치매 관리 최전선인 '100세 안심 경로당'에 파견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치매 사각지대 발굴과 수요·응답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나주시는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거주 비율이 높은 마을 경로당 180곳(농촌형 172곳·도시형 8곳)을 '100세 안심 경로당'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경로당 한 곳당 10명씩을 돌봄 대상자로 선정해 총 1800여명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화순군,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 4인가구 기준 37만9600원 지원

화순군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유·LPG·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4만9800원, 2인 가구 20만5700원, 3인 가구 29만2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96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 방식은 하절기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가상카드를 사용해 전기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인 10월1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농협, 우체국, 국민은행, 광주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29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있어 잔액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동절기는 난방요금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으로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올해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선정된 장흥군 안양면 모령마을. 〈장흥군 제공〉

# 장흥 모령마을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장흥군 안양면 모령마을이 '2023년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됐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 농업 실천 마을이다. 친환경 인증면적 10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 30% 이상이 기준이다.

안양면 모령마을은 유기농 18.4ha, 무농약 4ha 등 총 22.4ha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상태다.

전남도는 생태 환경이 잘 보전되고 친환경 실천 의지가 강한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장흥에서는 관산읍 송촌마을과 옥촌마을, 안양면 신촌마을·학송마을이 유기농 생태마을로 뽑혔다.

모령마을은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마을회관 앞 벽화와 마을 돌담, 흙벽, 우물 등의 생태환경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장흥군은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등을 통해 모령마을이 생태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시설 개발과 관광·체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유기농 생태마을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군민 소득향상과 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장성군, 벼 재해보험료 10%P 늘려 90% 지원

장성군이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장성군은 올해도 '벼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국비 포함 90%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80%였던 보험료 지원 비율은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90%로 상향됐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가뭄·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병해충 특약을 추가하면 흰잎마름병·도열병 등 병해충 7종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

벼 재해보험은 농업인이 지역농협에 직접 방문해 가입해야 한다. 일반벼는 오는 23일, 가루쌀은 7월 7일까지 접수받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